

[국제]

■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담 첫날 표정

일단 순항...北 핵 신고·불능화 절충 촉각

北 “美 상응조치 우선돼야”... ‘경수로 제공’도 제기할 듯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며 비핵화의 첫 행동에 나선 덕택일까.

4개월만에 베이징에서 재개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현재까지는 돌발상황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북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17일 4시간 가까이 서로의 대사관을 오가며 양자회담을 갖고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다음 단계 이행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미 어느 쪽도 6자회담 테이블에 먹구름을 드리울만한 새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힐 차관보는 18일 속소를 나서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우리는 (핵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등) 2단계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연말을 전후해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2단계 조치들을 끝내자는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연내 불능화 완료, 내년 비핵화 완료’라는 미국의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회담장 안팎의 분석이다.

회담 상황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전날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경수로 등 걸려온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체로 좋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폐쇄시설을 조기에 불능화하고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등 나머지 핵프로그램도 연내에 모두 신고하고 불능화한다’는 한·미의 2단계 로드맵 구상에 순순히 동의할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확실한 변화를 담보하기 전까지는 불능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단계 약속이행을 위해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수로 제공’도 시간 문제일 뿐 북한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마치 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한 뒤에야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

은 경수로 제공에 대한 확실한 시간표가 마련되지 않으면 불능화에 착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어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이 지난 13일 언급한 유엔을 포함한 북·미 군사회담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표면상으로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자며 북·미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는 미국의 핵위협을 주장하며 ‘핵군축론’을 제기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北 핵 시설 5곳 모두 폐쇄 확인”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영변에 있는 5MW급 원자로를 포함, 핵시설 5개가 모두 폐쇄 조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8일 밝혔다. AFP와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영변에 있는 5개 핵시설 모두 폐쇄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시설은 감시검증단이 봉인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주 간 추가로 감시·검증 장치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연합뉴스



브라질선 건물과 충돌 200여명 사망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려 애쓰고 있다.

17일 브라질 탐(TAM)항공사 여객기가 충돌한 상파울루 시내 콩고나스 공항 화물터미널 및 주유소 건물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려 애쓰고 있다. /상파울루AP=연합뉴스



콜롬비아에선 바다 돌진 6명 부상

아에로리퍼블리카 항공 소속 Embraer 190기가 17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북쪽 산타 마르타의 시몬 볼리바르 공항에 긴급 착륙한 모습. 54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에 멈추지 못하고 공항 담을 뚫고 나가 바다로 돌진했으나 승객 대부분이 비행기 동체 앞 부분에 설치된 탈출 슈트를 통해 빠져나와 6명만 부상을 입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에로리퍼블리카 항공 소속 Embraer 190기가 17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북쪽 산타 마르타의 시몬 볼리바르 공항에 긴급 착륙한 모습. 54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에 멈추지 못하고 공항 담을 뚫고 나가 바다로 돌진했으나 승객 대부분이 비행기 동체 앞 부분에 설치된 탈출 슈트를 통해 빠져나와 6명만 부상을 입었다. /로이터=연합뉴스

日 니가타 방사능 유출...원전 가동 중단

진도 6.8의 지진이 강타한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는 18일 지진으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도쿄전력의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가동정지를 명령했다.

가시와자키의 아이다 히로시 시장은 이날 오전 도쿄전력의 가스 마타 쓰네히사 사장을 시청으로 불러 이번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

한 가리와 원전 시설내 지반에 이상이 발견돼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방법에 입각해 가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의 원전 관할 지자체가 소방법에 의거, 가동 정지명령을 내리기는 지난 1995년 고속중식로 ‘문쥬’ 나트륨 누출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1-7호기 원전 모두에 대해 가동을 중지하라고 도쿄전력에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 도쿄전력측 누출된 방사능 양을 축소해 발표했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도쿄전력측은 당초 물과 함께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량을 6만 베크렐(Bq,방사능 단위)이라고 밝혔다가 이날 9만 베크렐로 정정 발표했다. /도쿄=연합뉴스

왜 미인들은 딸을 많이 낳을까

왜 남자들이 금발을 좋아하고 미인들은 딸을 많이 낳는가.

뉴질랜드 신문들은 18일 캔터베리 대학에서 강의했던 일본의 진화 심리학자 사토시 카나자와 교수의 뉴질랜드의 엘런 밀러 교수가 ‘정체적으로 보면 부정확한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이같은 의문에 대해 진화 심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화 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의 두뇌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진화의 목표를 연구함으로써 인간 행태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루게 될 명제를 가운데서 우선 남자들이 가슴이 풍만한 금발 미녀를 좋아한

다는 명제에 대해, 남자들의 욕구가 젊고, 건강하고, 아이를 잘 낳을 것 같은 여성과 짝을 이루기를 즐긴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두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자손번식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선택, 또는 자연 도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화돼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남자들에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미인이나 잘 생긴 사람들이 딸을 많이 낳는 것도 아름다움이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때만 발동

한-EU FTA, 무역규제 사실상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무역규제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또 반덤핑 분야에서도 제로잉 금지, 공익조항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척을 이뤘고 EU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짜퐁(모조품)’에 대해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재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17일(이하 현지시간) 2차 협상 둘째 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무역규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으며 세이프가드는 원칙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당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한-EU FTA에서는 두지 않도록 합의했다”며 “다만 적용 기간은 관세 철폐 이후 10년까지로 했는데 EU 측에서 추가로 검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조사 기간 중에 양측에 충분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고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공익조항 등에 합의했고 반복 덤핑에 대한 규제, 제삼의 경우에도 원심과 같이 1%의 미소 마진을 둔다는 등의 내용은 EU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그는 밝혔다. /브뤼셀=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1위 광주고시학원 8월 1일 첫진도 개강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안내